

2018년 1월 20일, 대정읍 일과1리 강여순 씨 덕, 이현정 조사.  
강여순(여, 1930년생, 대정읍 일과1리)

- 줄거리: 여우는 낮에는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람과 친구로 어울렸다가, 밤이 되면 다시 여우로 돌아간다. 사람으로 둔갑한 여우는 붉거나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난다.

[조사자] 그러면 혹시 여우 얘기 7든 것도 들어나셨우과? 여우가 여자로 둔갑헤그네 어떻게 흘렀다 뭐 이런 얘기덜…….

[제보자] 여우가게, 옛날에 말이지. 여우가 낮이는 사람이고 밤이는 여우가 돼영 니빨도 그자 두 개, 시 개 돌아그네 허곡. 옷도 따른 거 헤연 무신 붉은 옷 7든 거 입곡. 그자 또 다니곡게. 아이민 헤양헌 옷을 입이나, 경 헤민 요 허엿주게 여우, 덩겅젠 헛주게.

[조사자] 거든 여우는 여자로 벤신하는 게 주로마씨? 여자로 둔갑허여?

[제보자] 여자로도 허곡 남자로도 허곡. 여운 벤색 벤색 허여.

[조사자] 그믄은 여자로 변색헤그네 어떻게 헛 흘려 사름을?

[제보자] 흘리진 안 허. 흘리진 아이고, 그 낮이 7든 때엔 사름광 막 친허영 7찌 덩겨도 밤이는 오꼴 여우 돼연.

[조사자] 소 간이나 말 뭐 내장 빼여 먹는데 헛 얘기는 엇우과?

[제보자] 아니여.

[조사자] 게든 여우랑 친구헌 사름은 어떻게 헤여.

[제보자] 밤이는 갈라지주게 갈라정 도로. 그 사름 혼자만 어들로 나가그네 산천 7든데 강 여우로 벤색허연.

- 핵심어: 여우, 여자, 벤색(변신), 사람, 친구, 밤, 낮, 둔갑